

中韩专家合作编写基础韩国语教材

中韩交流 标准韩国语 泛读教程

主 编 尹允镇
副主编 权赫律
主 审 李注衡 (韩)
崔羲秀
李先汉

ZHONGHAN JIAOLIU
BIAOZHUN HANGUOYU
FANDU JIAOCHENG

上海教育出版社
上海海文音像出版社

中韩专家合作编写基础韩国语教材

中韩交流 标准韩国语 泛读教程

主 编 尹允镇
副主 编 权赫律
主 审 李注衡 (韩)
崔羲秀
李先汉

ZHONGHAN JIAOLIU
BIAOZHUN HANGUOYU
FANDU JIAOCHENG

上海教育出版社
上海海文音像出版社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中韩交流标准韩国语泛读教程 / 尹允镇主编.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10.8

ISBN 978-7-5444-2036-5

I. ①中… II. ①尹… III. ①朝鲜语—教材
IV. ①H5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0)第159114号

中韩交流标准韩国语泛读教程

主编 尹允镇

副主编 权赫律

上海世纪出版股份有限公司

上海教育出版社 出版

上海海文音像出版社

易文网: www.ewen.cc

上海世纪出版股份有限公司

外语教育图书分公司 出品

(邮编: 200235 上海钦州南路71号11楼 021-64378133)

上海世纪出版股份有限公司发行中心 发行

上海人教海文图书音像有限公司

(邮编: 200083 上海水电路54号 021-56978943)

各地新华书店经销 上海华文印刷厂印制

开本 787×1092 1/16 印张 17

2010年8月第1版 2010年8月第1次印刷

印数 0 001—5 000

ISBN 978-7-5444-2036-5/H·0165 定价: 30.00元

(如发生质量问题, 读者可向工厂调换)

编委会名单

主 编：尹允镇 吉林大学外国语学院副院长 教授 博士生导师

副主编：权赫律 吉林大学外国语学院朝语系主任 副教授

编 委：

王 勇 长春大学光华学院朝语系主任 教授

玄春秋 长春税务学院朝语系主任 副教授

孙 浩 长春师范大学朝语系主任

李明顺 长春大学旅游学院朝语系主任

李春姬 长春理工大学外国语学院朝语系主任 教授

李艳华 吉林师范大学外国语学院朝语系主任

金玉今 吉林农业大学外国语学院朝语系主任 教授

崔喜兰 长春工业大学人文信息学院外语系主任

赵继红 北华大学外国语学院朝语系主任

索建新 东北师范大学人文学院应用韩语系主任 教授

崔相哲 长春华侨外国语学院主任 教授

崔 彬 长春大学旅游学院主任 教授

目 录

상권

- 제1과 한국의 민속놀이 / 002
- 제2과 은혜 갚은 호랑이 / 006
- 제3과 한국 풍속과 예절 / 011
- 제4과 제주도 / 013
- 제5과 김정호 / 016
- 제6과 흥부와 놀부 / 019
- 제7과 생각해 봅시다 / 024
- 제8과 이사 / 027
- 제9과 서울 / 030
- 제10과 단군신화 / 033
- 제11과 울릉도 / 035
- 제12과 서울의 얼굴 / 038

하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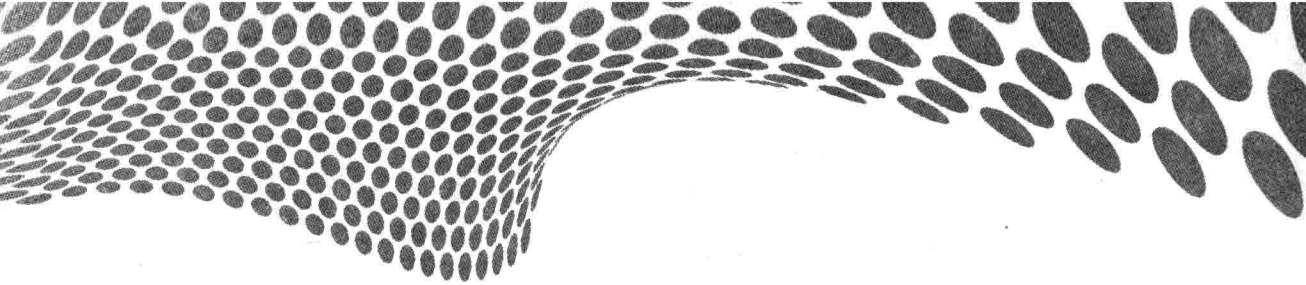
- 제1과 한국인의 일생 / 043
- 제2과 형제의 효자문 / 047
- 제3과 미리내 / 052
- 제4과 언어와 생활 / 056
- 제5과 생활의 기쁨 / 059
- 제6과 함께 하는 삶 / 063

上卷

- 第一课 韩国的民俗游戏 / 152
- 第二课 老虎报恩 / 155
- 第三课 韩国的风俗与礼节 / 159
- 第四课 济州岛 / 161
- 第五课 金正浩 / 163
- 第六课 兴夫与奴儿夫 / 165
- 第七课 值得深思的问题 / 169
- 第八课 搬家 / 171
- 第九课 首尔 / 173
- 第十课 檀君神话 / 176
- 第十一课 郁陵岛 / 177
- 第十二课 首尔的面容 / 179

下卷

- 第一课 韩国人的一生 / 183
- 第二课 兄弟的孝子门 / 186
- 第三课 银河 / 189
- 第四课 语言与生活 / 192
- 第五课 生活的乐趣 / 194
- 第六课 共同的生活 / 197



제7과 정보화 시대와 독서 / 066

제8과 아리랑 / 069

제9과 만남 / 072

제10과 한국의 정자 / 076

제11과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 079

제12과 문학의 세계와 삶의 세계 / 082

제13과 환경 파괴의 문제와 대책 / 086

제14과 우덕송 / 091

제15과 봄의 수상 / 095

제16과 시간의 빈터에서 / 100

열독과문

1. 병어리 삼룡이 / 104

2. 메밀꽃 필 무렵 / 112

3. 동백꽃 / 118

4. 수난이대 / 123

5. 무진기행 / 131

第七课 信息时代与阅读 / 199

第八课 阿里郎 / 201

第九课 相会 / 203

第十课 韩国的亭子 / 206

第十一课 以人为本 / 208

第十二课 文学世界与现实世界 / 210

第十三课 环境污染的问题与对策 / 213

第十四课 牛德颂 / 216

第十五课 春之随想 / 219

第十六课 在时间的空隙里 / 222

阅读课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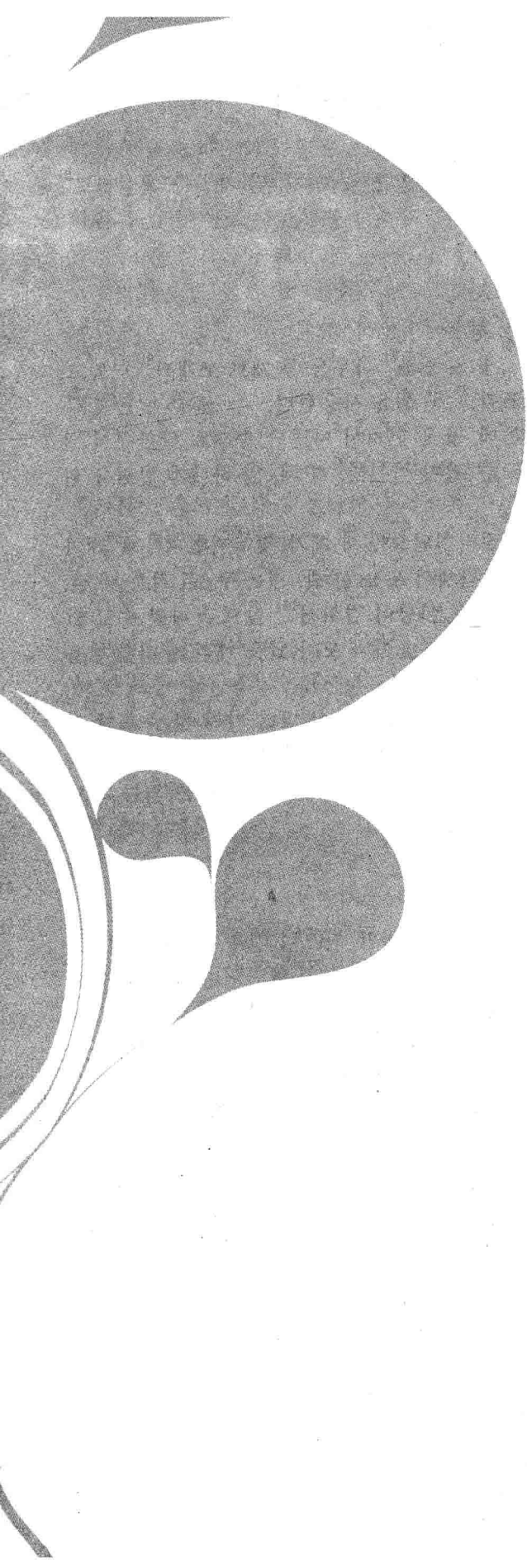
1. 哑巴三龙 / 225

2. 荞麦花开的季节 / 231

3. 山茶花 / 237

4. 受难二代 / 242

5. 雾津行记 / 249



상 권

제 1 과 한국의 민속놀이

우리 나라에는 예부터¹⁾ 전해 오는 많은 민속놀이가²⁾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계절별로 소개하면⁴⁾ 다음과 같다.

1) 윷놀이

윷놀이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기는 것으로서, 정초에⁵⁾ 많이 한다.

윷놀이에는 윷과 말판,⁶⁾ 그리고 말이 필요하다. 윷은 둥근⁷⁾ 나무를 두 개로 쪼개서⁸⁾ 만들고, 말판은 종이에 그리면 된다. 말은 돌이나 나무 조각,⁹⁾ 콩 등을 사용한다.

놀이 방법은 두 사람 이상이 편을 나누어 하는데, 윷을 던져서 나타난 수대로 말판에서 말을 전진시켜¹⁰⁾ 말 네 개가 먼저 말판을 돌아 나오는 편이 이긴다. 이 때, 말 하나가 말판을 완전히¹¹⁾ 돌아 나오는 것을 “한 동”이라고 한다.

윷을 던져서 한 개가 져서지면¹²⁾ 도, 두 개가 져서지면 개, 세 개가 져서지면 걸, 네 개가 져서지면 윷, 네 개가 앞서지면¹³⁾ 모라고 하는데, 말판에서 도는 한 발, 개는 두 발, 걸은 세 발, 윷은 네 발, 모는 다섯 발을 앞으로 나간다. 말은 두 개 이상이 겹쳐서¹⁴⁾ 앞으로 나갈 수도 있으며, 도중에¹⁵⁾ 상대방의¹⁶⁾ 말을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윷이나 모가 났을 때와 상대방 말을 잡았을 때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윷을 놀 수 있다.

윷놀이는 집안이나 밖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놀이로서, 윷가락이 멀리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안에서는 담요나¹⁷⁾ 돛자리를,¹⁸⁾ 집밖에서는 가마나¹⁹⁾ 명석을²⁰⁾ 깔고²¹⁾ 한다.

윷놀이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²²⁾ 않으나, 윷의 역사는 약 1,500년쯤 되는 것으로 믿어진다.²³⁾

2) 널뛰기

널뛰기는 젊은 여자들이 즐기는 놀이로서, 정초에 많이 하지만, 단오나²⁴⁾ 추석²⁵⁾ 때도 한다.

널뛰기는 너비가 30cm쯤 되고 길이가 3m쯤 되는 두꺼운 판자를²⁶⁾ 짚단이나²⁷⁾ 가마니 같은 것으로 그 가운데를 피어놓고,²⁸⁾ 양쪽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서로 번갈아²⁹⁾ 공중으로 뛰

1) 예부터 以前开始

2) 민속놀이 民俗游戏

3) 계절별 按季节

4) 소개하다 介绍

5) 정초 正月初

6) 말판 盘(玩游戏用的)

7) 둥글다 圓

8) 쪼개다 劈开

9) 나무 조각 木头片

10) 전진 前进

11) 완전히 完全

12) 져서지다 朝上

13) 앞서지다 朝下

14) 겹치다 重叠

15) 도중 途中

16) 상대방 对方

17) 담요 毯子

18) 돛자리 席子

19) 가마니 草袋

20) 명석 草席

21) 깔다 垫

22) 확실하다 确实

23) 믿다 相信

24) 단오 端午

25) 추석 中秋

26) 판자 板子

27) 짚단 草捆

28) 피어놓다 垫

29) 번갈다 轮流

어울랐다 내려왔다 하는 놀이이다.

정초에 여자들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바람에 치맛자락과 웃고름을³⁰⁾ 나무끼며³¹⁾ 널을 뛰는 모습은 하나의 그림 같이 아름답다.

옛날에는 요즘 같이 여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을³²⁾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여자들은 널뛰기를 하면서 담 너머로 바깥세상을³³⁾ 구경했을 것이며, 담 너머의 젊은 남자들은 널을 뛰는 여자들의 모습에 가슴만 태웠을³⁴⁾ 것이다.

널뛰기에는, 높은 담 너머의 옥에³⁵⁾ 갇힌³⁶⁾ 남편을 보기 위해서 그 아내가 다른 죄인의 아내를 피어³⁷⁾ 이 널뛰기를 시작하였다는 말이 전하나 어느 만큼이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다.

3)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청소년들의 놀이인데 정초에 많이 한다. 어떤 지방에서는 12월 중순부터 연날리기를 시작하나, 대개 설날에서 대보름 사이에 가장 많이 한다.

연은 창호지나³⁸⁾ 백지와³⁹⁾ 대나무로⁴⁰⁾ 만드는데, 연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연에 예쁜 색을 칠하거나⁴¹⁾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또 종이로 길게 고리를⁴²⁾ 달기도 한다. 따라서 연은 그 색깔과 모양에 따라 방패연,⁴³⁾ 꼬리연 등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른다.

연을 날릴 때 연 싸움을 하기도 하는데, 서로 연실을 감아⁴⁴⁾ 실이 끊어지는 쪽이 진다. 따라서 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유리나 사기를⁴⁵⁾ 빵아⁴⁶⁾ 만든 가루를 연실에 바르기도⁴⁷⁾ 한다.

정초에 날리던 연은 정월 대보름에 날려 보내는데, 그렇게 하면 액운이⁴⁸⁾ 사라지고 복이 찾아온다고 믿는 데서 그러한 풍속이 생긴 것이다.

4)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주로 남부 지방에서 대보름날을 전후해서 많이 하는데 마을과 마을이 동, 서, 또는 남, 북으로 나뉘어서 한다.

정초부터 각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짚을 모아다가⁴⁹⁾ 굵고⁵⁰⁾ 튼튼한 줄을 만드는데, 큰 것은 직경이⁵¹⁾ 30-60cm, 길이가 100m나 될 때도 있다. 두 마을의 줄은 줄다리기 하는 날 농악대를⁵²⁾ 앞세우고 시합장소로⁵³⁾ 가지고 가서 하나로 연결한다.

줄다리기의 승부는⁵⁴⁾ 기를 꽂아놓은⁵⁵⁾ 곳에서 한쪽이 끌려가면 결정된다.⁵⁶⁾ 즉 끌려간 편

30) 웃고름 衣服帶

31) 나무끼다 飄揚

32) 외출 外出

33) 바깥세상 外部世界

34) 태우다 燃燒

35) 옥 監獄

36) 갇히다 被關押

37) 피다 引誘

38) 창호지 窗戶紙

39) 백지 白紙

40) 대나무 竹

41) 색을 칠하다 刷漆

42) 고리 飄帶

43) 방패연 中間有孔的風箏

44) 감다 纏

45) 사기 瓷

46) 빵다 搗碎

47) 바르다 抹

48) 액운 厄運

49) 모으다 聚集

50) 굵다 粗

51) 직경 直徑

52) 농악대 農樂隊

53) 시합장소 比賽場所

54) 승부 勝負

55) 기를 꽂아놓다 插旗

56) 결정된다 決定

이 지는 것이다.

줄다리기에는 나이 많은 노인과 어린 아이, 그리고 여자들은 응원만⁵⁷⁾ 하고, 직접 참가하지는 않는다. 위험할⁵⁸⁾ 뿐만 아니라 힘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⁵⁹⁾ 신바람이 나거나⁶⁰⁾ 자기 편이 끌려가게⁶¹⁾ 되면 구경하던 사람들이 뛰어들어 줄을 당기기도 하고, 여자들은 앞치마에 돌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줄에 매달리기도⁶²⁾ 한다.

시합이⁶³⁾ 끝나면 줄다리기 하던 줄은 이긴 편이 가지고 가는데, 줄다리기에서 이긴 마을은 풍년이⁶⁴⁾ 들고 진 마을은 흉년이⁶⁵⁾ 든다고 한다.

이 줄다리기는 여러 사람의 단결이⁶⁶⁾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협동심을⁶⁷⁾ 기르는데 적합한⁶⁸⁾ 운동이라 하겠다.

5 그네뛰기

오월 단오를⁶⁹⁾ 전후해서 여자들은 그네를 뛴다.

그네는 짚으로 만든 밧줄로⁷⁰⁾ 동네 어귀⁷¹⁾ 등에 서 있는 큰 나무의 가로로⁷²⁾ 뻗은⁷³⁾ 굵은 가지에 맨다.

그네는 혼자 뛰기도 하고, 두 사람이 마주 서서 같이 뛰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그네를 다른 사람이 앞으로 밀어 주거나⁷⁴⁾ 뒤로 잡아당겼다가⁷⁵⁾ 놓아 준다.

녹음⁷⁶⁾ 우거진⁷⁷⁾ 오월의 큰 나무 아래서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여자들이 치맛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그네를 뛰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이 아름답다.

여자들의 외출이 금지되었던⁷⁸⁾ 옛날에도 단오 때는 여자들끼리 모여 그네를 뛸 수 있었으니, 그네야말로 짧은 시간이지만 여자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놀이였던 것이다.

6 씨름

단오 날 남자들은 씨름을 하는데,⁷⁹⁾ 씨름은 단오 날 외에 추석 때도 한다.

씨름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허리를 굽혀서,⁸⁰⁾ 오른손으로 상대방의⁸¹⁾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상대방의 오른쪽 다리에 맨 살바를⁸²⁾ 잡고 하는데, 상대방을 먼저 쓰러뜨리면⁸³⁾ 이긴다. 씨름에서 이기려면 힘도 세어야⁸⁴⁾ 하고, 손과 발도 잘 써야 한다.

씨름을 하는 장소는 강변의 모래밭이나⁸⁵⁾ 잔디밭⁸⁶⁾ 같은 곳이 좋다. 왜냐하면 돌이 있는

57) 응원 加油、助威

58) 위험하다 危險

59) 때때로 時刻、时时

60) 신바람이 나다 高興、來勁

61) 끌려가다 被拉過去

62) 매달리다 抱住

63) 시합 比賽

64) 풍년 丰年

65) 흉년 凶年

66) 단결 团结

67) 협동심 同心協力

68) 적합하다 合适

69) 단오 端午

70) 밧줄 繩子

71) 동네 어귀 村口

72) 가로 橫着

73) 뻗다 伸出

74) 밀어 주다 給推

75) 잡아당기다 拽

76) 녹음 綠蔭

77) 우거지다 茂密

78) 금지되다 禁止

79) 씨름을 하다 摔跤

80) 허리를 굽히다 彎腰

81) 상대방 對方

82) 살바 腿繩

83) 쓰러뜨리다 摔倒

84) 힘이 세다 有勁、力氣大

85) 모래밭 沙地

86) 잔디밭 草坪

곳이나 단단한⁸⁷⁾ 땅에서는 씨름을 하다가 넘어질 때 다치기⁸⁸⁾ 쉽기 때문이다.

씨름에서 우승한⁸⁹⁾ 사람을 장사라 부르며, 장사로 뽑힌⁹⁰⁾ 사람에게는 보통 황소를 상으로 준다. 그러므로 상으로 받는 황소가 몇 마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⁹¹⁾ 평가된다.

7)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는 추석을 전후해서 전라도 남해안 지방에서 볼 수 있다.

밝은 달 아래서 여자들이 넓은 마당에 모여 둥글게 손과 손을 잡고, 목청 좋은⁹²⁾ 사람이 맨 앞이나 원의⁹³⁾ 중앙에⁹⁴⁾ 들어가서 선창을 하면⁹⁵⁾ 나머지 사람들은 “강강수월래”하고 후렴을⁹⁶⁾ 하면서 빙빙⁹⁷⁾ 원을 그리며⁹⁸⁾ 춤을 춘다. 처음에는 움직이는 듯 마는 듯 천천히 춤을 추다가 점점 빨라지고, 다시 느려졌다가⁹⁹⁾ 빨라지고 하는데, 밝은 달 아래서 수십 명의 여자들이 한 복을 곱게 차려 입고 원무하는¹⁰⁰⁾ 모습은 매우 아름답다.

강강수월래에 대해서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¹⁰¹⁾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이상에서 소개한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민속놀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속놀이들이 요즘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며, 어떤 것은 10월에 열리는 전국 민속 예술제¹⁰²⁾ 같은 곳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잊혀져 가는 우리의 것을 찾아 계승 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답문제

1. 윷놀이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2. 윷놀이는 어떻게 합니까?
3. 윷놀이를 할 때 어떤 경우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윷을 놀 수 있습니까?
4. 널뛰기는 언제 합니까?
5. 널뛰기를 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해 보시오.
6. 널뛰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7. 연날리기는 언제 합니까?
8. 연은 무엇으로 만드느가를 말해 보시오.
9. 연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0. 줄다리기는 어떻게 승부를 가립니까?
11. 어떤 경우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줄다리기에 참가합니까?
12. 그네는 어떻게 뛴니까?
13. 씨름은 어떻게 합니까?
14. 씨름은 왜서 모래밭이나 잔디밭 같은 데서 합니까?
15. 강강수월래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놀이입니까?

87) 단단하다 硬

88) 다치다 伤

89) 우승하다 优胜

90) 뽑히다 选拔

91) 실력 实力

92) 목청 좋다 嗓门好

93) 원 圆

94) 중앙 中央

95) 선창을 하다 先唱

96) 후렴 重唱

97) 빙빙 转动

98) 그리다 画

99) 느려지다 慢下来

100) 원무하다 圆舞

101) 관련되다 有关, 关联

102) 예술제 艺术节

제2과 은혜 깊은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 외판집에¹⁾ 나무꾼이 늙은 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청승맞은²⁾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순간 나무꾼은 소름이³⁾ 짝 끼쳤습니다.

“사람 살려!”

나무꾼은 지계를 팽개치고⁴⁾ 산을 펄펄 뛰어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어느새 나무꾼을 앞질러⁵⁾ 와서 길에 떡 버티고⁶⁾ 앉아 있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나무꾼은 호랑이를 보자마자 오들오들⁷⁾ 떨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입을 딱 벌린 채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나무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의 입안을 들여다보니 목구멍에 무엇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아, 저것을 뽑아 달라고 그러는구나.”

나무꾼은 그제야 호랑이가 길가에 버티고 앉아 입을 벌린 까닭을 알았습니다.

“그걸 뽑아 드릴 테니, 나를 살려 주시겠소?”

나무꾼이 묻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에게 다가가서 입을 크게 벌려 보았습니다. 순간, 나무꾼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호랑이의 목구멍에 은비녀가⁸⁾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를 잡아 먹다가 비녀가 목구멍에 걸렸구나.”

나무꾼은 떨리는 손으로 은비녀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뜻밖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고맙긴요. 그, 그럼, 나는 이만 가 보겠습니다.”

나무꾼은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산을 펄펄 뛰어내려왔습니다. 그 호랑이가 뒤쫓아 와 저를 잡아 먹을까봐 등에 식은땀이⁹⁾ 흘렸습니다.

“오늘은 나무도 안 해 오고…… 왜 그렇게 허겁지겁¹⁰⁾ 집으로 뛰어왔노?”

어머니가 눈을 휘둥그렇게¹¹⁾ 뜨고 물었습니다.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

“네, 여자를 잡아 먹은 호랑이였는데 목구멍에 비녀가 걸려 있는 것을 뽑아주니까, 그 은혜

1) 외판집 单户人家

2) 청승맞다 令人晦气

3) 소름 鸡皮疙瘩

4) 팽개치다 抛弃、甩开

5) 앞지르다 抢先、超前

6) 버티다 挺立

7) 오들오들 哆哆嗦嗦

8) 은비녀 银簪

9) 식은땀 盗汗、虚汗

10) 허겁지겁 惊惶失措

11) 휘둥그렇다 睁大眼睛

를 꼭 갚겠다고 하더군요.”

“사람을 잡아 먹는 호랑이가 어떻게 은혜를 갚노?”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저러나 나무를 못 해 왔으니 내일 장에 가지 못 하겠구나.”

“양식이 다 떨어졌지요?”

“괜찮다. 너만 아무 일 없이 살아 돌아왔으면 됐지 뭐.”

그 날 밤, 두 식구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무엇인가 마당에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꾼이 깜짝 놀라서 방문을 열어 보았습니다.

“아니……!”

“쿵, 쿵……”

이어, 계속 마당으로 통나무가¹²⁾ 날아와 떨어졌습니다. 나무꾼은 누가 나무를 던지는지 알았습니다.

“아하, 낮에 만났던 호랑이가 그랬구나!”

나무꾼은 마당으로 나가서 나무 등치를¹³⁾ 도끼로 패어¹⁴⁾ 장작을¹⁵⁾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그 호랑이가 나무를 해 주었어요. 새벽에 이것을 장에 내다가 팔면 양식을 사 올 수 있어요.”

나무꾼은 잠을 한숨¹⁶⁾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장작을 지게에 졌다가¹⁷⁾ 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나무꾼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무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통나무를 매일 했다가 마당에 던져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호랑이가 정말로 은혜를 갚는구나.”

어머니도 좋아했습니다.

나무꾼은 그것을 도끼로 패어 장에 내다가 팔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장작이 좋아서 값도 많이 받고 잘 팔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무꾼은 어머니를 방 안에서 쉬게 하고는 저녁을 지었습니다. 나무꾼은 효자였습니다.

“후유, 살림이 넉넉하면¹⁸⁾ 장가를 들어¹⁹⁾ 줄 것을……”

어머니는 부엌을 내다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나무꾼은 저녁을 지어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참한 색시²⁰⁾ 하나 며느리 삼았으면 원이 없겠다.²¹⁾”

이튿날 새벽, 마당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²²⁾

12) 통나무 原木

13) 등치 树干的下部

14) 패다 劈开

15) 장작 木柴

16) 한숨 一会儿

17) 지다 背

18) 넉넉하다 足够、宽裕

19) 장가를 들다 娶媳妇

20) 색시 媳妇

21) 원이 없다 没有遗憾、放心

22) 갸우뚱하다 歪、晃动

“나무는 어젯밤에 호랑이가 해 주었는데…… 대체 무엇이 떨어진 것일까?”
 마당에 웬 처녀가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산골에 웬일로……”
 나무꾼은 처녀를 일으켰습니다.
 “호, 호랑이한테 물린²³⁾ 뒤로는 정신을 잃었어요.”
 “아이고……!”
 처녀는 엉덩이를 매만졌습니다.²⁴⁾
 나무꾼은 그제야 호랑이가 어디 가서 처녀를 물어다 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나와서 처녀를 반기며²⁵⁾ 말했습니다.
 “머느릿감 걱정을 했더니, 호랑이가 소리를 듣고 처녀를 물어 온 거로구나.”
 처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호랑이가 자기를 물고 온 까닭을 알았습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만일 저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 호랑이가 해를 끼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무꾼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처녀를 기꺼이²⁶⁾ 아내로 맞았습니다.
 나무꾼의 아내가 된 이 처녀는 어느 정승의²⁷⁾ 딸이었습니다. 마침 혼인을 하게 되어, 그 준비를 하던 중에 호랑이에게 물려 산 속의 외딴집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꾼에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처갓집에²⁸⁾ 인사를 하러 가야 하는데 집안이 워낙 가난하므로 예물 한 가지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처가댁에 가져갈 예물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 이 일을 어떡하면 좋지요?”
 “예물도 예물이지만, 서울까지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걸어간단 말이나?”
 나무꾼과 어머니는 아내 몰래 이런 근심을 하다가 밤을 꼬박²⁹⁾ 새웠습니다.
 날이 밝자 아내가 아침을 지으러 나갔다가 “저것 좀 보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왜 그러오?”
 나무꾼이 뛰어나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당에 떡과 고기와 술이 잔뜩 놓여 있고, 소 한 마리와 나귀³⁰⁾ 두 마리가 기둥에³¹⁾ 매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호랑이가 그랬구나! 이렇게 고마울 데가……”
 어머니도 나와서 좋아했습니다.
 나무꾼은 음식을 소에 싣고, 아내와 각각 나귀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정승은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돌아오자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산신령님(호랑이를 가리킴)이³²⁾ 신랑까지 얻게 해 주셨으니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구나!”³³⁾
 정승은 곧 성대한³⁴⁾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머니도 모셔다가 여기서 함께 사는 게 어떻겠나?”

23) 물리다 被咬

24) 매만지다 摸一摸

25) 반기다 迎接、欢迎

26) 기꺼이 欣然、高兴地

27) 정승 丞相

28) 처갓집 老丈人家

29) 꼬박 一直

30) 나귀 驴

31) 기둥 柱子

32) 산신령님 山神

33) 경사가 나다 喜事

34) 성대하다 盛大

정승은 나무꾼에게 권했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 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거리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사람을 해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장안은³⁵⁾ 발각 뒤집혔습니다.³⁶⁾

임금님이 신하들에게³⁷⁾ 명령했습니다.

“활 잘 쏘는 사람들을 풀어 호랑이를 잡도록 하라!”

그러나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장정들이³⁸⁾ 나서도 그 호랑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생각다 못하여 장안 거리에 방문을³⁹⁾ 써 붙이도록 했습니다.

“누구든지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주고 벼슬을⁴⁰⁾ 주겠노라.”

정승의 사위가 된 나무꾼도 이 방문을 읽었습니다.

정승의 사위는 이런 때 큰일을 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정승의 사위는 활을 메고 거리고 나섰습니다. 그 날, 장안을 어지럽히던⁴¹⁾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정승의 사위는 호랑이가 나타나자 활을 들어 호랑이를 겨냥했습니다.⁴²⁾

그 호랑이는 매우 늙었습니다.

호랑이는 정승의 사위 앞으로 어슬렁어슬렁⁴³⁾ 걸어왔습니다.

“에잇!”

정승의 사위는 활을 쏘았습니다. 호랑이가 화살을 맞고 펍 쓰러졌습니다.

“잡았다!”

정승의 사위가 쓰러진 호랑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그 호랑이가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아니……!”

정승의 사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호랑이는 산속에 살 때 비녀를 뽑아 주어 은혜를 갚아 준 그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나무꾼은 서울로 온 뒤로 그 호랑이를 까맣게 잊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어서 장안에 나타나 소란을 피웠습니다.⁴⁴⁾ 그러나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람을 잡아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뽑아 준 그 비녀는……”

“그것은 시부모에게 잘못하는 며느리를 혼내 주려고⁴⁵⁾ 쪽을⁴⁶⁾ 물어뜯다가⁴⁷⁾ 목구멍에 걸린 것입니다.”

“아, 그랬군!”

“장안 사람들이 나에게 물려 죽었다는 것은 모두 헛소문입니다.⁴⁸⁾ 서방님을 찾으러 다니

35) 장안 城里

36) 뒤집히다 掀翻

37) 신하 臣下

38) 장정 壮丁

39) 방문 公告

40) 벼슬 官职, 官

41) 어지럽히다 弄乱、弄得混乱

42) 겨냥하다 瞄准

43) 어슬렁어슬렁 慢吞吞地

44) 소란을 피우다 喧哗、吵闹、骚乱

45) 혼나다 吓坏、挨整

46) 쪽 髻

47) 물어뜯다 啃、咬

48) 헛소문 谣言

는 나를 보고 기절을 한⁴⁹⁾ 사람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서방님을 뵈었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⁵⁰⁾ 어서 나를 잡아다가 임금님께 바치세요.”

호랑이는 그 말을 남겨 놓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암호랑이였습니다. 그래서 정승의 사위를 보고 사람처럼 “서방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정승의 사위는 그 호랑이를 임금님께 갖다 바치지 않고 몰래 산에 내어다가 고이⁵¹⁾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그 호랑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줄거리가 조금씩 바뀌어 전해 내려 옵니다.

문답문제

1. 호랑이는 왜 나무꾼을 불렀습니까?
2. 호랑이의 목구멍에는 무엇이 걸려 있었습니까?
3. 호랑이는 은혜를 갚기 위하여 매일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4. 나무꾼은 왜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까?
5. 호랑이는 왜 처녀를 몰어다 나무꾼에게 주었습니까?
6. 처녀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7.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인 다음 나무꾼은 무슨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8. 나무꾼의 이 걱정을 호랑이는 어떻게 해결해 주었습니까?
9. 정승은 나무꾼이 찾아가자 왜 기뻐했습니까?
10. 정승은 나무꾼에게 무엇을 권했습니까?
11. 세월이 흐른 뒤에 서울 거리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2. 임금님은 왜 방문을 써 붙이게 되었습니까?
13. 호랑이는 왜 장안에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14. 왜 호랑이 목에 비녀가 걸려 있었습니까?
15. 호랑이가 죽은 뒤에 나무꾼은 호랑이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49) 기절을 하다 暈倒、昏倒

50) 한이 없다 沒有遺憾

51) 고이 珍重地

제3과 한국 풍속과 예절

옛날부터 “예절의 나라”로 불리어 오고 있는 우리 나라에는 아름다운 마음씨를¹⁾ 나타내는 여러 가지 예절이 있다. 웃어른에 대한 예절, 아랫사람에 대한 예절, 가정에서의 예절, 이웃간의 예절, 혼상제례에 대한 예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웃어른이라 하면 집안 어른, 동네 어른, 모교의 은사,²⁾ 직장의 상사,³⁾ 국가의 지도자 등을 말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웃어른에 대한 예절이 매우 엄격하였다.

결에서 늘 모시는 어른께 아침저녁으로 문안을 드렸으며, 멀리 계신 친척 어른들께도 자주 문안을 드렸다. 대가족 제도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어른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른들을 위해서 해야만 했다.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 드리고 제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먼저 드려야 함은 물론이고, 옷도 가장 값진 옷감으로 지어 드렸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웃어른께 상의하여⁴⁾ 결정하고 웃어른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였다.

어른들 앞에서는 큰 소리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화도 내면 안 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아이들이 잘못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야단을 치지 못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웃는다거나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도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손을 입에 대고 웃는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담배를 피우다가 어른을 대하면 담배를 꺼 버려야 하고, 어른 앞에서는 다리를 뻗고 앉거나 꼬고⁵⁾ 앉거나 눕지도 않았다. 또 인사를 할 때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한다거나, 어른이 물건을 주실 때 한손으로 받는다거나, 어른 앞을 막 지나간다거나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어른들을 존경하고 위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아랫사람을 너무 소홀히 대하는 점도 없진 않았다.

음식을 먹을 때는 보통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앉아서 먹는다. 그러나 나이 많으신 분들과 나이 적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같이 앉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먼저 상좌에 앉은 다음, 나이 적은 사람들이 앉는다. 어른들이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먹는 것은 버릇없는⁶⁾ 사람이다.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안 되고, 맛있는 반찬은 어른들에게 양보를 한다. 특히 음식을 먹을 때 코가 잘 나오는데 닦는 정도로 하고, 풀지 않는 것이 좋다. 정 풀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풀고 와야 한다. 또 방귀를 푸는 것도 실례가 된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었어도 어른들이 수저를 놓을 때까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한국에서는 백일, 돌, 생일, 결혼식, 환갑, 진갑 같은 날에 보통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지만, 음식점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다. 잔치에 초대할 때에는 아침식사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도시인들은 대부분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초대에 갈 시간이 없어서 보통 저녁에 한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아침식사에 손님들을 초대하는 일이 많다. 농촌에서는 아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을 많이 먹어야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

1) 마음씨 心眼

2) 은사 恩師

3) 상사 上司

4) 상의하다 商量

5) 꼬다 纏

6) 버릇없다 沒禮貌